

관광지 개발유형별 선택요인에 관한 연구 : 신세대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Selection Factor by the Destination Development Type
: Focused on the New Generation

박재용 대구가톨릭대학교 관광학과 강의전담교수(제1저자)
하정순 대구가톨릭대학교 부동산통상학부 강사

주요단어: 관광지개발, 개발유형, 선택요소, 신세대

목 차

- I. 서론
- II. 이론적 배경
 - 1. 관광지 개발의 개념
 - 2. 관광지 개발유형과 관광지선택 요인
- III. 연구방법
 - 1. 연구내용
 - 2.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 3. 조사도구 및 분석방법
- IV. 실증분석 결과
 - 1. 조사대상자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과 주거특성
 - 2. 관광지개발 요인 추출
 - 3. 관광지 개발유형별 특성
 - 4. 관광개발유형별 관광지선택 요인
- V. 연구결과 및 제언

I. 서론

가처분 소득의 증대, 노동시간 단축과 여가의 증가, 인터넷의 사용으로 인한 관광정보의 증대 등 일련의 흐름은 최근 주5일 근무제 도입과 맞물려 여가와 관광환경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노동제일주의에서 생활제일주의로의 가치관 변화는 노동의 질적 변화를 초래하였고 증대된 여가시간, 고속도로와 같은 인프라의 구축 등으로 상승작용을 일으켰다.

이러한 변화는 관광시설의 개발에 있어서도 과거와 같이 단순히 먹고 자는 시설중심의 개발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다양한 관광숙박과 이용시설 확충, 저가의 가족형·체험형 프로그램 개발 및 상품개발, 관광정보와 안내체계 확충 등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는 그동안 추진되었던 공급자 중심의 단순한 시설개발에서 수요자 중심의 기호에 맞는 다양한 시설과 프로그램의 필요를 의미하며 관광활동의 만족도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인식시켜 주고 있다(윤양수, 2003).

그런데 1980년대부터 시작된 국내 관광개발의 양상은 국가주도형의 관광개발이 주를 이루었다. 국가주도형 관광개발은 경제적 성과에만 치우쳐 지역의 형평성이나 자원의 보호 및 보존에 관한 인식이 부족하였다. 더욱이 1990년대에 시작된 지방자치제는 개발주체가 지방정부로 이양되면서 경제적 이익에 편중된 관광개발의 양상을 보여 국가주도형 관광개발에 비해 비계획성, 재정부족, 지역 간의 균형성 축소 등의 문제를 야기시켰다(이효선·김상범, 2006). 기존의 이러한 개발위주의 정책은 관광지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생태적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경제적 이익이 우선시되어 책임성(responsibility) 보다는 수익성(profitability)을 추구하는 불합리한 모습으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관광지 조성에 있어

서도 광역적인 차원이 아니라 단일관광지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기존 관광지와와의 연계를 어렵게 하여 구심적 역할에 한계가 있었다.

한편 이러한 관광지 개발에 있어서 신세대를 중심으로 한 관광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신세대들은 보다 지적이고 상대적으로 중요한 세분시장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으며(Cho, 1996), 젊은 신세대 관광시장을 유인하고 만족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이는 장래에 재방문을 유도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큰 시장이기 때문이다(조배행, 2001).

즉 미래에 우리나라 관광을 주도하게 될 신세대는 관광개발에 대한 인식 및 선택에 있어서 기존세대와 뚜렷한 차이를 보이게 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향후 우리나라 관광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광개발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세분시장별 특성을 다소 소홀히 한 채 풍경이 좋은 자연관광지 중심으로 관광지 개발이 이루어진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신세대를 중심으로 관광개발유형을 도시관광개발, 농촌관광개발, 문화관광개발, 해안관광개발, 산악관광개발 등으로 나누고 그들이 관광지를 선택할 때 어떤 요소를 중요시하는지 파악해 봄으로써 다양한 관광지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국토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에 연구의 목적이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관광지 개발의 개념

오늘날 국가 및 지역발전, 조세수입 증대, 고용효과 측면에서 관광지 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민간에서도 관광지 개발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

역 내 관광을 촉진하고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며 지역주민의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관광개발의 목적은 관광공간을 제공하고 지역이나 국가경제를 발전시키며 관광가치를 증대시킴과 아울러 관광자원과 관광자 보호에 있다. 이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관광대상은 자연·인문관광자원, 교통기반시설, 각종 이용시설자원, 정보조직과 제공체계, 각종 서비스체계 등이다(박석희, 1997).

지역개발로서의 관광개발은 일반적으로 그 관광권 내에 내재해 있는 잠재적 관광자원에 관광의 투입요소를 적용함으로써 관광지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다(Pearce, 1989). Lavery(1994)에 의하면 관광지는 자연경치가 아름다운 지역, 위락시설 지역, 숙박지 등 3가지로 분류되며 자연조건, 여행 유형, 체류기간 등에 따라 관광객의 행태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광지의 개발은 여행객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상세하고 계획적으로 이동수단부터 숙박 시설까지를 총망라한다고 하였다.

한편 현대적 의미의 관광개발이란 관광자원에 인간의 노력을 가하여 관광자원이 지닌 특성적 가치를 증대시킴으로써 관광의 제반 효과를 얻기 위한 계획적인 변화를 뜻한다. 즉 자연·문화자원을 있는 그대로 보존하는 개념과 기존 자원에 인공을 가하여 새로운 시설, 공간을 조성하는 개념을 포함한다. 또한 관광개발은 관광수입을 벌어들이지는 단순한 목적보다는 사회·경제적 의미로서 낙후된 지역사회의 개발을 통해 균형 있는 국토개발을 이룩하고 국민소득증대, 고용증대 등의 파급효과에도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서태양, 1998). 물론 이 과정에서 지역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관광개발계획에 주민참여가 필요하며 지역주민의 관광개발에

대한 태도, 지원, 참여가 관광산업과 지역사회 간의 불일치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Sheldon and Abenoja, 2001).

2. 관광지 개발유형과 관광지선택 요인

관광지는 여행객의 목적 가운데 휴양, 보양, 스포츠, 오락, 문화경관 등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자연자원, 문화자원, 인공시설 등 관련시설이 배치되어 있는 자연 또는 공공시설 등을 포함한 관광 대상물인 관광객체로서 관광지에 대한 개발의 지가 있는 지역이라 할 수 있다(한국관광공사, 1997). 그런데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개발의지는 물론 관광목적지로서 매력성을 구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관련해 오상순 외(2005)는 관광지가 지속적으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다양하면서도 창조적인 매력을 제공해야 하며, Mellor(2003)는 매력성을 제공하지 못하는 관광지는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즉 관광지 개발의지와 관광지 매력성의 상승작용을 통해 관광객에게 심신의 휴식과 위안을, 지역 주민에게는 소득증진이라는 요소들이 적절히 합해 질 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관광지의 개발은 먼저 관광지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은 관광자원으로서 특성을 뜻한다. 이러한 관광자원으로서의 특성을 고려한 관광지 개발유형에 대해 김상무(1991)는 자원특색에 따른 관광지 개발에서 온천 관광개발형, 계절적 휴양지 관광개발형, 고지와 산악 관광개발형, 해안 관광개발형, 전원과 농촌 관광개발형으로 유형화하였고, 未武直義(1984)는 자연경관형, 명승지·고적지, 자연휴양지, 온천형, 해양스포츠형, 산악·고원스포츠형, 드라이브형 등으로 유형화하였다.

Ahn et al.(2002)의 연구에 따르면 관광개발의 유형을 세 가지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첫 번째는 Passive Low Development(소극적, 소규모 개발) 형태로 개인, 가족과 소그룹 형태의 방문자 그리고 당일관광, 유적지관광 등이 측정항목으로 포함되어 있다. 두 번째는 Active and High Development(적극적, 대규모 형태의 관광개발) 형태로 높은 수준의 산업기반시설 개발, 놀이공원, 해변가 리조트 개발 등이 포함되어 있다. 세 번째는 Nature Based Development(자연친화적 관광개발) 형태로 자연 생태학습, 조류관련 사업 등이 측정항목에 포함되었다. 지역주민의 관광개발 형태에 대한 선호도조사에서 Port Lavaca 지역은 대규모 개발이 적합한 지역임에도 소규모 개발이 선호되었다. Port O'Connor 지역주민들은 자연친화적 환경개발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Gold(1980), Hudman and Hawkins(1989)는 관광지개발에 인구통계적 변수가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한편 관광지 선택요인은 관광객에게 매력을 주는 공통요소로 제시되고 있는데 Rao and Thomas(1992)는 기후조건이 관광지를 선택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로, 그 다음 식사가 상대적으로 중요한 속성으로 나타났다고 하였고 Pizam, Neumann and Reichel(1976)은 숙박시설, 식음료시설, 근접성, 자연 경관 및 매력성, 비용, 오락 등 편의시설, 환대성, 관광정보의 타당성 등이 관광지선택의 요인으로, Mathieson and Wall(1989)은 관광지의 사회적, 물리적, 정치적 환경, 내부적인 접근성 등이 관광지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속성이 된다고 하였다.

국내에서 최복수·이상경(2000)은 자연적 풍경 및 경관, 관광지의 레크레이션 시설, 역사적·문화적 관광자원, 관광지의 숙박시설, 관광지의 식음료 시설, 인문적인 관광자원, 접근의 용이성, 관광정

보 이용의 용이성, 거주민의 친절성이 관광객의 관광지선택에 미치는 속성이라고 하였다. 조배행(2001)은 한국 신세대의 호주관광 이미지 평가에 관한 연구에서 호주관광속성과 관련되어 가장 높은 기대치를 보인 속성들은 아름다운 경관, 깨끗하고 오염되지 않은 환경, 휴식할 수 있는 장소 등을 선호한다고 하였다.

문헌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관광지 속성과 관광객의 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많은 연구(김영문·채수원, 1996; 심상화·김월호, 1998; 오석윤·오영찬, 2000; 박성용·오태현, 1999)가 이루어져왔으나 신세대들을 대상으로 한 관광지 개발 유형별 선택요인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관광지 개발유형을 5가지로 나누고 그에 맞는 선택요인을 통해 신세대들에게 적합한 관광지 개발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한편 본 연구는 20~30대의 신세대들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한국사회학회(1990)에서는 신세대를 가치관이나 사고방식, 생활양식, 감정과 그 표현방식을 일정하게 공유하고 있는 세대라고 정의하였고 허윤정(2000)은 그들을 강한 매니아 성향은 물론 남과 다르게 보이고자 하는 성향이 강하다고 하였다. Tapscott(1998)은 신세대가 극단적 독립심, 감성적-지적 개방성, 포용성, 자유로운 표현과 강한 주장, 혁신, 성숙하기 위한 열정, 탐구심, 성급함, 기업적 이익에 대한 민감성, 사실확인과 신뢰 등 10가지 면이 기성세대와 차이를 보이는 특징이라고 하였다.

우리나라는 1996년 이후 신세대란 용어가 등장하여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그러한 세대에 동조하듯 “젊게 산다”는 다운 에이징(Down Aging)현상이 사회적으로 일반화되면서 신세대의 소비행태는 전체연령층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백샘이·간호섭, 2003). 관광에 있어서도 이들은 해변,

야간유흥, 동적인 활동을 선호하고 흥분과 모험을 추구하고 있다(심상화·김월호, 1998). 젊은 신세대 관광시장을 유인하고 만족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이는 장래에 재방문을 유도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큰 시장이기 때문이라 하였다(조배행, 2001). 이와 같이 신세대는 기존 세대와는 다른 문화를 만들어 내고 시장을 움직이는 주역으로 등장했으며 마케팅에 있어서 핵심포목 집단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는 20대와 30대 중반까지를 신세대로 보고 관광지 개발을 조사해 봄으로써 향후 관광시장의 주역으로 부상할 신세대들에게 적합한 세분시장별 관광개발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본 연구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문헌조사와 설문조사에 의한 실증적 조사방법을 병행하였으며 연구내용, 자료수집과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연구내용

본 논문은 관광지 개발유형별로 관광지 선택요인을 연구해 보는 것으로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신세대가 선호하는 관광지 개발의 일반적 경향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관광지 개발유형별로 인구학적 특성과 주거특성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3> 관광지 개발유형별로 관광특성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4> 신세대가 선호하는 관광지 선택요인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5> 관광지 개발유형별로 관광지 선택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2.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자료 수집은 대구시 내에 거주하는 20대와 30대 중반까지의 신세대를 대상으로 수성구, 달서구, 북구, 남구 등 4지역으로 군집표본추출하여 무작위 표본추출방법을 사용하였다. 설문지는 2007년 5월 1일부터 2007년 5월 20일까지 450부를 배포하여 부실 기재된 것을 제외한 351부(78%)가 실증분석에 사용되었다.

3. 조사도구 및 분석방법

조사도구는 사회인구학적 변수와 주거변수를 포함하여 8문항, 관광지 개발유형 13문항, 관광지선택 21문항, 관광특성 6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관광지 개발유형 문항은 Ahn et al.(2002)의 연구에서 해안관광개발, 자연관광개발, 유적지와 같은 문화관광개발문항을 인용하였고 그의 문항은 허향진 외(2005), 이효선·김상범(2006) 등의 연구를 참고로 하였다. 관광지선택 문항에서 가격적합성은 곽노엽(1999), 자연매력성은 Rao and Thomas(1992), 그의 문항은 진병렬(2001)의 연구를 참고로 하였다. 이러한 관광 개발유형과 관광지 선택에 대한 변수는 '전혀 아니다'를 1점, '매우 그렇다'를 7점으로 하여 7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수집한 자료의 분석은 SPSS WIN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 평균, 요인분석, 분산분석, 군집분석, Duncan의 사후검증, Chi-Square분석을 하였다. 이외에 각 척도의 신뢰도 검증을 위하여 Chronbach's Alpha계수를 이용하였다.

IV. 실증분석 결과

본 연구는 대구에 거주하는 20~30대 중반의 신세

대를 대상으로 한 연구로서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주거특성을 보면 다음과 같다.

미만(43.1%), 30평형대(36.2%) 순이었고 주택가격은 1억 원대(59.0%), 2억 원대(19.7%) 순이었다.

1. 조사대상자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과 주거특성

사회 인구학적 특성인 성별은 남성(25.6%)과 여성(71.4%)으로 분포되어 있었으며 연령은 20대(62.4%), 30대(37.6%)로 구성되어 미혼(65.8%)이 대부분이었다. 직업은 학생이 52.1%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회사원, 공무원, 교사직과 판매서비스직이 16.2%로 같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주택소유 형태는 타가(67.5%)가 대부분이었고 주거유형은 주택이 53.0%를 차지하였다. 아파트 평수는 30평

2. 관광지개발 요인 추출

신세대가 선호하는 관광지 개발이 어떠한 유형으로 분류되는지 알아보기 위한 요인 추출방법으로 주성분 분석방법을 적용하고 판별타당성과 집중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직각회전방법 중 VARIMAX 방법을 이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eigen값이 1 이상인 5개의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전체변수에 대한 표적 적합도를 알 수 있는 Kaiser-Meyer-Olkin(KMO)척도는 0.641로 나타났다.

표 1_ 관광지 개발유형 요인분석

요인명 (평균)	평균	문항	도시 관광 개발	농촌 관광 개발	문화 관광 개발	해안 관광 개발	산악 관광 개발	커뮤 니널 러티
도시관광 개발(5.19)	4.86	• 소평관광을 즐길 수 있는 곳이 개발되었으면 좋겠다	.950	-.001	-.081	.040	-.025	0.912
	5.00	• 도시관광을 즐길 수 있는 곳이 개발되었으면 좋겠다	.934	-.076	-.063	-.047	-.024	0.884
	5.37	• 주제공원이 개발되었으면 좋겠다	.636	.227	.005	.138	-.140	0.495
농촌관광 개발(4.70)	4.69	• 관광농원이 개발되었으면 좋겠다	.024	.912	.069	.075	.228	0.895
	4.87	• 농촌 휴양단지가 개발되었으면 좋겠다	.063	.912	.074	.051	.159	0.869
	4.55	• 주말농원이 개발되었으면 좋겠다	.089	.467	.118	.393	-.035	0.456
문화관광 개발(4.72)	4.72	• 박물관, 미술관이 개발되었으면 좋겠다	-.084	.038	.912	.238	.087	0.904
	4.86	• 사적, 사찰, 전통건축물이 개발되었으면 좋겠다	-.002	.027	.901	.295	.066	0.904
	4.56	• 향토민속예술제가 개발되었으면 좋겠다	-.094	.341	.552	-.196	.223	0.518
해안관광 개발(5.71)	5.79	• 스포츠형 해양레저가 개발되었으면 좋겠다	.133	.135	.147	.909	.079	0.890
	5.63	• 해양관광시설이 개발되었으면 좋겠다	-.036	.039	.162	.899	.113	0.849
산악관광 개발(5.06)	5.02	• 등산, 스키를 할 수 있는 곳이 개발되었으면 좋겠다	-.090	.173	.127	.079	.956	0.974
	5.10	• 산악관광이 개발되었으면 좋겠다	-.088	.169	.130	.104	.946	0.959
고유값			3.74	2.44	1.84	1.22	1.20	
총분산(%)			28.78	18.76	14.18	9.41	9.26	
누적분산(%)			28.78	47.54	61.72	71.13	80.38	
Cronbach's α			0.814	0.742	0.770	0.905	0.954	

변수들 사이의 상관관계의 존재에 대한 통계적 검증치로서 요인분석 모형의 적합성을 나타내는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치는 유의확률이 0.000으로 귀무가설을 기각하여 수집된 자료가 요인분석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각 요인적재량(factor loading)과 공통성(communality) 또한 유의한 변수의 기준인 0.4(Hair, Anderson, Tatham and Black, 1998)를 충분히 상회하였다. 요인분석결과 요인 1은 도시관광개발, 요인 2는 농촌관광개발, 요인 3은 문화관광개발, 요인 4는 해안관광개발, 요인 5는 산악관광개발로 명명하였다. 이러한 5개의 개발유형은 전체분산의 80.38%로서 높은 설명력을 보였으며 신뢰도(Chronbach's Alpha)계수가 0.742-0.954로써 Nunally and Bernstein(1994)이 제시하는 최저 허용치인 0.6 이상을 상회하였다.

신세대들은 해안관광개발(M=5.71) > 도시관광개발(M=5.19) > 산악관광개발(M=5.06) > 문화관광개발(M=4.72) > 농촌관광개발(M=4.70)의 순으로 선호하고 있었다.

3. 관광지 개발유형별 특성

1) 관광지 개발 세분화

신세대가 선호하는 관광지 선호개발 유형을 요인 분석한 후 표준화된 요인점수(factor scores)를 근거로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일반적으로 군집을 신출할 때 각 변수별 척도를 통일하기 위하여 변수를 표준화하여 분석을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박성현 외, 2002). 본 연구에서는 한 군집 내의 모든 객체들은 다른 군집의 평균 벡터보다 그 군집의 평균벡터에 더 가깝도록 군집시키는 K-평균 군집방법(K-Means Clustering)을 측정된 표본에 적용하여 상호 배타적인 군집들을 만들어 보았다. 세분화의 기준이 되는 관광지 개발유형 특성이 반영되면서 상대적으로 다양한 유형을 파악할 수 있는 6개 집단으로 세분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각 군집이 보이는 특징적인 경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각 군집별로 관광지 개발의 하위구성요소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군집1은 개발유형의 하위구성요소의 특성 중 해안관광지 개발이 매우 높

표 2_ 각 군집에 대한 요인점수 평균

관광지 개발	군집	해안관광 개발형	도시관광 개발형	산악관광 개발형	부정형	문화관광 개발형	농촌관광 개발형
	N=66(18.8)	N=30(8.5)	N=72(20.5)	N=33(9.4)	N=51(14.5)	N=99(28.2)	
도시관광개발	.43448	.57067	-1.10477	-.81244	.11056	.51811	
농촌관광개발	.26199	-1.63926	.36139	-.02532	-.93453	.54912	
문화관광개발	.28106	-1.48516	-.14989	-.23063	1.37164	-.25804	
해안관광개발	1.04431	.14374	.32333	-.69756	-.19551	-.64167	
산악관광개발	-.57196	.28264	.65654	-1.82010	.20484	.31935	

고 농촌관광개발, 문화관광개발의 선호가 매우 낮았으며 산악 관광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집단이었다. 그러므로 해안관광개발형이라고 명명하였으며 조사대상자가 66명(18.8%)으로 세 번째로 많은 빈도수를 차지한 집단이다.

군집2는 개발유형의 하위구성요소의 특성이 도시관광개발에 대한 선호가 매우 높고 해안관광개발, 산악관광개발의 선호는 대체로 낮았으며 농촌관광과 문화관광개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집단이었다. 그러므로 도시관광개발형이라 명명하였으며 조사대상자가 30명(8.5%)으로 가장 적은 빈도수를 차지한 집단이다.

군집3은 개발유형의 하위구성요소의 특성이 산악관광지 개발에 대한 선호가 매우 높고 농촌관광, 해안관광개발의 선호는 대체로 낮았으며 도시관광개발과 문화관광개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집단이었다. 그러므로 산악관광개발형이라고 명명하였으며 조사대상자가 72명(20.5%)으로 두 번째로 많은 빈도수를 차지하고 있는 집단이다.

군집4는 개발유형의 하위구성요소의 특성이 모두가 부정적인 성격을 띠어 개발자체에 대해 부정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산악관광개발과 도시관광개발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개발을 선호하지 않는 집단으로 보아 부정형이라 명명하였으며 조사대상자가 33명(9.4%)으로 두 번째로 적은 빈도수를 차지하고 있는 집단이다.

군집5는 개발유형의 하위구성요소의 특성이 문화관광개발에 대한 선호가 높고 도시관광개발과 산악관광개발에 대해 대체로 선호가 낮았으며 농촌관광개발과 해안관광개발에 대해 부정적인 집단이었다. 그러므로 문화관광개발형이라고 명명하였으며 조사대상자가 51명(14.5%)으로 네 번째로 많은 빈도수를 차지하고 있는 집단이다.

군집6은 개발유형의 하위구성요소의 특성이

다른 집단에 비해 농촌관광개발에 대한 선호가 가장 높고 도시관광개발에 대한 선호는 다른 집단에 비해 약간 높은 편이며 산악관광개발에 대해서는 선호가 낮았다. 문화관광개발과 해안관광개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집단이었다. 그러므로 농촌관광개발형이라고 명명하였으며 조사대상자가 99명(28.2%)으로 가장 많은 집단이었다.

2) 관광지 개발유형별 신세대 소비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주거특성

관광지 개발유형별로 신세대 소비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주거특성과의 유의적인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Chi-Square분석을 실시하였다(<표 3> 참조). 그 결과 연령($p < .001$), 성별($p < .01$), 결혼여부($p < .01$), 학력($p < .001$), 한달평균소득($p < .001$), 소유형태($p < .01$), 평수($p < .001$), 주택가격($p < .001$)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안관광개발형은 대부분 20대(77.3%)인 미혼(80.3%), 학력은 대학재학 중인 학생(68.2%)으로 여성(56.4%)이 많았으나 다른 집단에 비해 남성(43.6%)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 한 달 평균소득은 200만 원대와 300만 원대가 각각 27.3%, 주택평수는 30평 미만과 30평형대가 40.9%로 같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주택가격은 1억 원대(72.7%), 자가율은 50%로서 가장 낮은 집단이다.

도시관광개발형은 100% 모두 20대인 미혼으로 학력은 대학재학 중(90%)이 대부분이었다. 여성(60.0%)이 많았으나 다른 집단에 비해 남성(40.0%)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 한 달 평균소득은 300만 원대(30%)였으며 주택가격은 1억 원대(50%)가 많았으나 상대적으로 3억 원 이상(30%)이 많은 집단이었다. 자가율(80%)이 가장 높은 집단이며 주택평수는 상대적으로 40평 이상(30.0%)이

표 3_ 선호하는 관광지 개발유형별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주거특성과의 Chi-Square분석

일반적 특성	군집	해안관광 개발형	도시관광 개발형	산악관광 개발형	부정형	문화관광 개발형	농촌관광 개발형	계	X ² 통계량
	연령	20대	51(77.3)	30(100)	30(41.7)	18(54.5)	33(64.7)	57(57.6)	
	30대	15(22.7)	0(0)	42(58.3)	15(45.5)	18(35.3)	42(42.4)	132(37.6)	
	계	66(100)	30(100)	72(100)	33(100)	51(100)	99(100)	351(100)	
성별	남	29(43.6)	12(40.0)	31(43.0)	0(0)	7(13.2)	21(21.2)	90(25.6)	17.139** (df=5)
	여	37(56.4)	18(60.0)	41(56.0)	33(100)	44(86.8)	78(78.8)	261(74.4)	
	계	66(100)	30(100)	72(100)	33(100)	51(100)	99(100)	351(100)	
결혼 여부	미혼	53(80.3)	30(100)	34(47.2)	15(45.5)	37(72.5)	62(62.6)	231(65.8)	20.18** (df=5)
	기혼	13(19.7)	0(0)	38(52.8)	18(54.5)	14(27.5)	37(37.4)	120(34.2)	
	계	66(100)	30(100)	72(100)	33(100)	51(100)	99(100)	351(100)	
학력	고졸 미만	3(4.5)	0(0)	12(16.7)	15(45.5)	0(0)	6(6.1)	36(10.3)	93.492*** (df=10)
	대학재학	45(68.2)	27(90.0)	24(33.3)	6(18.2)	24(47.1)	57(57.6)	183(52.1)	
	대졸 이상	18(27.3)	3(10.0)	36(50.0)	12(36.4)	27(52.9)	36(36.4)	132(37.6)	
	계	66(100)	30(100)	72(100)	33(100)	51(100)	99(100)	351(100)	
한달 평균 소득 (가족 전체)	200만 원 미만	6(9.1)	6(20.0)	18(25.0)	3(9.1)	6(11.8)	6(6.1)	45(12.8)	69.346*** (df=20)
	200만 원대	18(27.3)	3(10.0)	6(8.3)	15(45.5)	15(29.4)	18(18.2)	75(21.4)	
	300만 원대	18(27.3)	9(30.0)	12(16.7)	12(36.4)	6(11.8)	24(24.2)	81(23.1)	
	400만 원대	12(18.2)	6(20.0)	9(12.5)	3(9.1)	3(5.9)	24(24.2)	57(16.2)	
	500만 원 이상	12(18.2)	6(2.0)	27(37.5)	0(0)	21(41.2)	27(27.3)	93(26.5)	
	계	66(100)	30(100)	72(100)	33(100)	51(100)	99(100)	351(100)	
주거 유형	주택	36(54.5)	18(60.0)	39(54.2)	24(72.7)	24(47.1)	45(45.5)	186(53.0)	14.275(n.s) (df=10)
	아파트	27(40.9)	12(40.0)	30(41.7)	9(27.3)	27(52.9)	48(48.5)	153(43.6)	
	기타	3(4.5)	0(0)	3(4.2)	0(0)	0(0)	6(6.1)	12(3.4)	
	계	66(100)	30(100)	72(100)	51(100)	51(100)	99(100)	351(100)	
소유 형태	자가	33(50.0)	24(80.0)	45(62.5)	21(63.6)	36(70.6)	78(78.8)	237(67.5)	18.373** (df=5)
	타가	33(50.0)	6(20.0)	27(37.5)	12(36.4)	15(29.4)	21(21.2)	114(32.5)	
	계	66(100)	30(100)	72(100)	33(100)	51(100)	99(100)	351(100)	
평수	30평 미만	27(40.9)	12(40.0)	21(30.4)	21(63.6)	15(29.4)	54(54.5)	150(43.1)	41.474*** (df=10)
	30평형대	27(40.9)	9(30.0)	39(56.5)	3(9.1)	27(52.9)	21(21.2)	126(36.2)	
	40평 이상	12(18.2)	9(30.0)	9(13.0)	9(27.3)	9(17.6)	24(24.2)	72(20.7)	
	계	66(100)	30(100)	69(100)	33(100)	51(100)	99(100)	348(100)	
주택 가격	1억 원 미만	3(4.5)	6(20.0)	9(12.5)	12(36.4)	3(5.9)	0(0)	33(9.4)	68.552*** (df=15)
	1억 원대	48(72.7)	15(50.0)	33(45.8)	15(45.4)	30(58.8)	66(66.7)	207(59.0)	
	2억 원대	9(13.6)	3(10.0)	18(25.0)	0(0)	15(29.4)	24(24.2)	69(19.7)	
	3억 원 이상	6(9.1)	6(30.0)	12(16.7)	6(18.2)	3(5.9)	9(9.1)	42(12.0)	
	계	66(100)	30(100)	72(100)	33(100)	51(100)	99(100)	351(100)	

*p<.05 **p<.01 ***p<.001 n.s: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 산악관광개발형은 30대(58.3%)인 기혼(52.8%), 학력은 대졸 이상(50%), 한 달 평균소득은 500만 원 이상(37.5%)이었으며 여성(56.0%)이 많았으나 다른 집단에 비해 남자(43.0%)가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 주택가격은 1억 원대(45.8%)가 많았으나 상대적으로 2억 원대(25.0%)도 많았으며 자가율(62.5%)은 상대적으로 낮았고 주택평수는 주로 30평형대(56.5%)에 거주하고 있었다.

부정형은 주로 20대(54.5%)가 많았으나 30대(45.5%)도 상대적으로 많은 집단이었다. 고졸 미만(45.5%), 한 달 평균소득은 200만 원대(45.5%)이었으며 기혼(54.5%)으로 모두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자가율은 63.6%이었는데 다른 집단에 비해 낮은 편이었다. 평수는 30평 미만(63.6%), 주택가격은 1억 원대(45.4%)가 많았으나 1억 원 미만(36.4%)이 가장 많은 집단이다.

문화관광개발형은 주로 20대(64.7%)이었으며 학력은 대졸 이상(52.9%)의 미혼(72.5%)인 여성(86.8%)으로 한 달 평균소득은 500만 원 이상(41.2%)이었다. 주택평수는 주로 30평형대(52.9%), 주택가격은 1억 원대(58.8%)가 많았으나 2억 원대(29.4%)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자가율은 70.6%로서 높은 편이었다.

농촌관광개발형은 20대(57.6%)였으며 학력은 대학재학 중(57.6%)인 미혼(62.6%) 여성(78.8%)이 대부분이었고 한 달 평균소득은 500만 원 이상(27.2%)이 많은 집단이었다. 자가율은 78.8%로서 높은 편이며 주택평수는 30평 미만(54.5%), 주택가격은 주로 1억 원대(66.7%)였다.

본 연구는 20대와 30대 중반까지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결혼여부가 주택소유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즉 미혼일 경우에는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 자가율이 높을

가능성이 많다고 여겨진다. 그런데 미혼임에도 해안관광개발형인 경우 자가율이 가장 낮은 집단으로 나타난 것은 이 집단이 가장 경제적으로 낮음을 의미하며 산악관광개발형과 부정형의 경우 자가율이 낮은 것은 기혼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집단에 비해 자가율이 낮은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주택의 자가율은 경제력의 차이보다는 결혼여부와 관계가 있다고 생각된다.

3) 관광지 개발 유형별 신세대 소비자의 관광특성

관광지 개발유형별로 신세대 소비자의 관광특성과의 유의적인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Chi-Square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국내관광 횟수($p < .001$), 국내 관광경비($p < .001$), 교통수단($p < .001$), 경비 조달($p < .001$), 투숙장소($p < .001$), 관광정보($p < .001$)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안관광개발형은 국내관광을 1년에 5~6번(59.1%)하고 관광경비는 20~40만 원 미만(45.5%)을 사용하였다. 교통수단으로는 자가용(51.5%)이 많았으나 상대적으로 다른 집단에 비해 기차(31.8%), 고속·일반버스(13.6%)가 많아 대중교통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집단이라 볼 수 있다. 경비 조달은 평소에 모은 돈(54.5%)으로 하며 투숙장소는 콘도미니엄(33.3%)을 이용하고 관광정보는 친구, 친척, 이웃의 관광경험(59.1%)을 통해 얻었다. 즉 해안관광개발형은 다른 집단에 비해 기차나 버스를 많이 이용하므로 대중교통과의 연계를 통해 교통비의 절감을 유도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해안 관광은 출발지에서 거리가 먼 경우가 많으므로 체제를 할 경우 이 집단에게는 콘도미니엄이 적당하며 관광정보는 인터넷보다 친구나 친척의 관광경험에서 얻어 효과적인 구전의 관리가 필요한 집단

표 4_ 관광지 개발유형별 관광특성과의 Chi-Square분석

관광특성		군집	해안관광 개발형	도시관광 개발형	산악관광 개발형	부정형	문화관광 개발형	농촌관광 개발형	X ² 통계량
국내 관광 횟수	4번 이하		9(13.6)	15(50.0)	15(20.8)	15(45.5)	15(29.4)	39(39.4)	50.197*** (df=15)
	5~6번		39(59.1)	6(20.0)	24(33.3)	9(27.3)	18(35.3)	21(21.2)	
	7~8번		9(13.6)	9(30.0)	18(25.0)	6(18.2)	12(23.5)	18(18.2)	
	8번 이상		9(13.6)	0(0)	15(20.8)	3(9.1)	6(11.8)	21(21.2)	
	계		66(100)	30(100)	72(100)	33(100)	51(100)	99(100)	
관광 경비	20만 원 미만		6(9.1)	6(20.0)	0(0)	0(0)	9(17.9)	3(3.0)	46.806*** (df=15)
	20~40만 원 미만		30(45.5)	9(30.0)	18(25.0)	12(36.4)	12(23.5)	42(42.4)	
	40만~60만 원 미만		15(22.7)	12(40.0)	27(37.5)	12(36.4)	21(41.2)	30(30.3)	
	60만 원 초과		15(22.7)	3(10.0)	27(37.5)	9(27.3)	9(17.6)	24(24.2)	
	계		66(100)	30(100)	72(100)	33(100)	51(100)	99(100)	
교통 수단	자가용		36(51.5)	21(70.0)	57(72.9)	30(90.9)	30(90.9)	33(64.7)	42.625*** (df=15)
	기차		21(31.8)	0(30.0)	9(12.5)	0(0)	0(0)	12(23.5)	
	고속/일반버스		9(13.6)	0(0)	6(8.3)	3(9.1)	3(9.1)	3(5.9)	
	기타		0(0)	0(0)	0(0)	0(0)	0(0)	3(5.9)	
	계		66(100)	30(100)	72(100)	33(100)	33(100)	51(100)	
경비 조달	부모에게 받음		24(36.4)	15(50.0)	9(12.5)	0(0)	6(11.8)	18(18.2)	92.608*** (df=15)
	평소에 모은 돈		36(54.5)	12(40.0)	51(70.8)	2(63.6)	39(76.5)	69(69.7)	
	여행적금, 계		3(4.5)	0(0)	3(4.2)	3(9.1)	0(0)	6(6.0)	
	기타		3(4.5)	3(10.0)	9(12.5)	9(27.3)	6(11.8)	6(6.1)	
	계		66(100)	30(100)	72(100)	33(100)	51(100)	99(100)	
투숙 장소	여관, 여인숙		9(14.3)	15(50.0)	6(8.3)	9(27.3)	12(23.5)	12(12.5)	76.847*** (df=25)
	민박		12(19.0)	3(10.0)	27(37.5)	3(9.1)	15(29.4)	30(31.3)	
	호텔		0(0)	0(0)	9(12.5)	0(0)	0(0)	3(3.1)	
	친구나 친척집		6(9.5)	3(10.0)	6(8.3)	0(0)	3(5.9)	12(12.5)	
	콘도미니엄		21(33.3)	6(20.0)	21(29.2)	15(45.5)	18(35.3)	36(37.5)	
	기타		15(23.8)	3(10.0)	3(4.2)	6(18.2)	3(5.9)	2(3.1)	
	계		63(100)	30(100)	72(100)	33(100)	51(100)	96(100)	
관광 정보	친구, 친척, 이웃의 관광경험		39(59.1)	9(30.0)	24(33.3)	21(63.6)	21(41.2)	27(27.3)	64.554*** (df=20)
	여행사직원		0(0)	0(0)	3(4.2)	0(0)	0(0)	3(3.0)	
	대중매체(텔레비전, 라디오, 신문 등)		3(4.5)	3(10.0)	3(4.2)	6(18.2)	15(29.4)	24(24.2)	
	자신의 여행경험이나 여행지식		3(4.5)	6(20.0)	12(16.7)	0(0)	6(11.8)	12(12.1)	
	인터넷		21(31.8)	12(40.0)	30(41.7)	6(18.2)	9(17.6)	33(33.3)	
	기타		66(100)	30(100)	72(100)	33(100)	51(100)	99(100)	

*p<.05 **p<.01 ***p<.001

이다.

도시관광개발형은 국내관광을 1년에 4번 이하(50.0%)로 하고 관광경비는 40~60만 원(40%), 교통수단으로는 자가용(70.0%)을 이용하고 경비조달은 부모에게 받아서(50.0%) 하였다. 투숙 장소는 여관, 여인숙(50%)을 이용하고 관광정보는 인터넷(40%)을 통해 가장 많이 접하고 있었다. 다른 집단에 비해 자신의 여행경험이나 여행지식(20.0%)을 상대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집단이다. 즉 도시관광개발형은 인터넷을 통해 관광정보를 얻는 경우가 가장 많아 온라인상에서 도시관광에서의 먹을거리, 살거리, 즐길 거리 등 다양한 양질의 관광정보가 제공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산악관광개발형은 국내관광을 1년에 5~6번(33.3%), 관광경비는 40~60만 원(37.5%), 60만 원 초과(37.5%)가 같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다른 집단에 비해 60만 원 초과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 가장 비용을 많이 쓰는 집단이라 볼 수 있다. 교통수단은 주로 자가용(72.9%)을 이용하였으며 경비조달은 평소에 모은 돈(70.8%)으로 하며 투숙장소는 민박(37.5%)이 많으나 상대적으로 호텔(12.5%)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집단이다. 관광정보는 주로 인터넷(41.7%)을 통해서 가장 많이 얻는다. 이 집단은 관광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얻고 다른 집단에 비해 관광경비를 제일 많이 쓰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호텔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명승지 근처에 비교적 저렴한 중저가 호텔(budget hotel)의 건립과 동시에 객실 안에 인터넷을 설치함으로써 다양한 관광정보를 얻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부정형은 국내관광을 1년에 4번 이하(45.5%), 관광경비는 20~40만 원과 40~60만 원이 36.4%로 같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교통수단으로는 자가용(90.9%)을 대부분 이용하였고 경비조달은

평소에 모은 돈(63.6%)을 주로 사용하며 투숙장소로는 콘도미니엄(45.5%)을 이용하였다. 관광정보는 주로 친구, 친척, 이웃의 관광경험을 통해서(63.6%) 얻었지만 관광지 개발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부정적인 집단이라 볼 수 있다.

문화관광개발형은 국내관광을 1년에 5~6번(35.3%)하고 관광경비로 40~60만 원 미만(41.2%)을 사용하였으며 교통수단으로 자가용(90.9%)을 이용하고 경비조달은 평소에 모은 돈(76.5%)을 사용하였다. 투숙장소로는 콘도미니엄(35.3%)을 이용하고 관광정보는 친구, 친척, 이웃의 관광경험(41.2%)에서 얻기도 하나 다른 집단에 비해 대중매체(텔레비전, 라디오, 신문 등)를 통해서(29.4%) 많이 얻고 있었다.

농촌관광개발형은 국내관광을 1년에 4번 이하(39.4%)로 하고 관광경비는 20~40만 원(42.4%), 교통수단으로는 자가용(64.7%)을 이용하고 경비조달은 평소에 모은 돈(69.7%)을 사용하며 투숙장소로는 콘도미니엄(37.5%)을 이용하였다. 관광정보는 인터넷(33.3%)에서 얻었다.

4. 관광개발유형별 관광지선택 요인

1) 관광지 선택요인 추출

신세대가 관광지 선택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이 어떠한 유형으로 분류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요인 추출방법으로 주성분 분석방법을 적용하고 판별타당성과 집중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직각회전방법 중 VARIMAX 방법을 이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eigen값이 1 이상인 6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또한 Kaiser-Meyer-Olkin(KMO)척도는 0.791로 양호한 값을 나타냈으며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치는 유의확률이 0.000으로 귀무가설을 기각하여 수집된 자료가 요인분석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각 요인적재량(factor loading)과 공통성(communality) 또한 유의한 변수의 기준인 0.4를 충분히 상회하였다.

요인 1은 경제성, 요인 2는 문화성, 요인 3은 자연성, 요인 4는 접근성, 요인 5는 시설성, 요인 6은 휴식·향수성으로 명명하였다. 6개의 관광지 선

택요소는 전체분산의 67.43%로서 높은 설명력을 보였으며 신뢰도(Chronbach's Alpha)계수는 0.712~0.957로써 Nunally and Bernstein(1994)이 제시하는 최저 허용치인 0.6 이상을 상회하였다. 신세대들은 관광지 선택 시 자연성(M=5.99) > 휴식·향수성(M=5.68) > 접근성(M=5.20) > 시설성(M=5.03) > 문화성(M=4.95) > 경제성(M=3.53) 순으로 중요시 여기고 있었다.

표 5_ 관광지 선택요소 요인분석

요인명 (평균)	평균	문항	1	2	3	4	5	6	커뮤 니텔 러티
경제성 (3.53)	5.95	• 숙박시설가격의 적합성	.821	.182	-.018	.020	.078	.165	0.741
	5.43	• 식음료(음식, 술, 음료수)가격의 적합성	.800	.310	.092	.143	.086	.081	0.779
	5.57	• 관광지의 물가수준	.758	.216	-.016	.058	.210	.033	0.670
	6.12	• 관광비용	.738	-.009	.254	.221	.167	.092	0.695
	5.36	• 관광기념품, 토산품가격의 적절성	.656	-.130	.294	.270	-.027	.156	0.631
문화성 (4.95)	4.85	• 문화적인 행사	-.048	.797	.055	.221	.164	.020	0.717
	4.94	• 맛있는 음식	.223	.716	.186	.145	-.004	.075	0.623
	4.39	• 교육적 관광프로그램	.168	.662	-.086	.165	-.023	.349	0.624
	4.10	• 주민의 친절성	.266	.603	.253	.082	-.164	.037	0.533
	5.47	• 색다르고 이색적인 분위기	.048	.602	.264	.002	.412	-.104	0.614
자연성 (5.99)	6.09	• 안락하고 쾌적한 곳	-.119	.067	.727	-.134	.105	.302	0.667
	5.56	• 알맞은 기온이나 기후	.275	.094	.683	.174	.072	-.029	0.587
	6.30	• 관광지의 청결성	.166	.266	.608	-.157	.000	.411	0.662
	6.03	• 주변경치의 아름다움	.148	.198	.581	.247	.012	.149	0.483
접근성 (5.20)	5.24	• 목적지까지의 손쉬운 도달	.216	.259	.064	.911	.045	.025	0.951
	5.17	• 다른 관광지와의 연계성	.244	.259	.066	.901	.069	.051	0.950
시설성 (5.03)	4.50	• 야간에 유흥을 즐길 수 있는 시설	.222	.035	.057	-.015	.783	-.102	0.678
	4.79	• 즐겁고 다양한 쇼핑을 할 수 있는 시설	.110	.104	-.059	.092	.712	.092	0.550
	5.80	• 여러 가지 즐길 수 있는 시설	.021	-.083	.234	.020	.661	.433	0.687
휴식· 향수성 (5.68)	5.78	• 휴식 및 긴장해소 할 수 있는 곳	.188	.038	.203	-.063	.155	.770	0.698
	5.58	• 추억이나 향수를 주는 곳	.135	.149	.194	.165	-.014	.718	0.621
고유값			3.38	2.80	2.19	2.07	1.92	1.81	
총분산(%)			16.08	13.35	10.43	9.84	9.12	8.61	
누적분산(%)			16.08	29.43	39.86	49.70	58.82	67.43	
Cronbach's α			0.855	0.780	0.747	0.957	0.725	0.712	

2) 관광지개발 유형별 관광지 선택요인

관광지개발유형별로 관광지선택 시 중요 요인 간의 차이분석을 실시하였다. 평균의 차이검증을 위해 이용되는 통계기법은 독립변수가 한 개일 경우 실시하는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채택하여 관광지 개별유형별로 집단의 차이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산분석의 사후검증으로는 여러 검증 중 M.R.T(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실시, 평균의 차이를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A(High) > B(Medium) > C(Low) 등으로 구별하여 표기하였다.

군집별로 관광지 선택 시 중요요인인 하위구성 요소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군집1인 해안관광개발형은 다른 집단에 비해 접근성과 시설성을 매우 중요시 여기고 있었다. 특히 접근성은 산악관광개발형보다 높고 시설성은 산악관광개발형과 문화관광개발형보다 높았다. 이 집단의 신세대들에게는 야간에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시설이나 오락거리 등을 제공하고 접근성과 관련해서는 바다

경치를 즐기며 해변가까지 운행하는 정동진행 열차 같이 타 교통수단과 연계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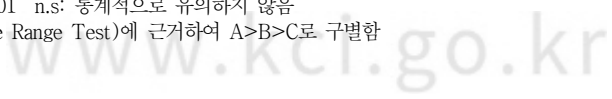
군집2인 도시관광개발형은 관광지 선택 시 다른 집단에 비해 시설성을 매우 중요시 여기는 특성을 지니고 있었다. 특히 산악관광개발형이나 문화관광개발형보다 시설성을 더 중요시 여겼으며 문화성, 자연성은 다른 집단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도시관광은 현대적인 이미지뿐 아니라 쇼핑과 같은 또 다른 즐거움을 제공해 준다. 실제로 관광행동에 있어서 관광쇼핑의 중요성은 더해가고 있으며(Tumer and Reisinger, 2001; 서용건, 고광희, 2006), 관광객들이 가장 선호하는 행동이기도 하다(Timothy and Butler, 1995). 따라서 젊은이들에게 도시에서의 볼거리뿐 아니라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쇼핑을 하기 위한 다양한 시설물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군집3인 산악관광개발형은 평균자체가 대체적으로 다른 집단에 비해 낮게 나타난 편이며 특히 문화성은 다른 집단에 비해 낮았고 자연성은 중요

표 6 _ 관광지개발 유형별 선택요인

선택요인	군집		해안관광 개발형		도시관광 개발형		산악관광 개발형		부정형		문화관광 개발형		농촌관광 개발형		F
	평균	D	평균	D	평균	D	평균	D	평균	D	평균	D			
경제성	5.45	AB	5.58	AB	5.16	B	5.75	A	5.88	A	5.60	A	4.49**		
문화성	5.00	AB	4.68	B	4.48	C	5.47	A	5.18	AB	5.06	AB	8.34***		
자연성	5.98	B	5.85	B	6.34	A	5.96	B	5.88	B	6.25	A	3.96*		
접근성	5.23	A	5.03	AB	4.46	B	5.94	A	5.68	A	5.30	A	10.32***		
시설성	5.20	A	5.87	A	4.42	B	5.40	A	4.63	B	5.21	A	16.12***		
휴식·향수성	5.68		5.95		5.67		5.64		5.50		5.71		0.91(n.s)		

*p<.05 **p<.01 ***p<.001 n.s: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M.R.T(Duncan's Multiple Range Test)에 근거하여 A>B>C로 구별함



시 여겼다. 자연성은 해안관광개발형, 도시관광개발형, 부정형, 문화관광개발형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집4인 부정형은 평균자체가 대체적으로 다른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난 편이며 경제성, 문화성, 접근성, 시설성 등은 높은 반면에 자연성은 낮게 나타났다. 이 집단은 관광지 개발을 선호하지는 않지만 관광지 선택 시 중요하게 여기는 등 이올배

반적인 요소가 많은 집단이라 볼 수 있다.

군집5인 문화관광개발형은 관광지선택 시 경제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른 집단에 비해 경제성, 접근성이 높은 반면에 시설성, 자연성은 낮게 나타났다. 특히 산악관광개발형에 비해 경제성과 접근성을 선호하였다. 문화관광개발형은 향토문화 예술제와 같은 행사에 신세대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젊은이들의 취향에 맞는 다양한 이벤트를

표 7_ 관광지 개발유형별 세분시장 프로파일

특성		군집	해안관광개발형	도시관광개발형	산악관광개발형	부정형	문화관광개발형	농촌관광개발형
사회 인구학 및 주거 특성	연령		20대	20대	30대	30대	20대	20대
	성별		남성	남성	남성	여성	여성	여성
	결혼여부		미혼	미혼	기혼	기혼	미혼	미혼
	학력		대학생	대학생	대졸 이상	고졸 미만	대졸 이상	대학생
	한달 평균 소득 (가족전체)		200 ~300만 원대	300만 원대	500만 원 이상	200만 원대	5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상
	소유형태		자가용 가장 낮음	자가용 가장 높음	자가용 낮은 편	자가용 낮음	자가용 높은 편	자가용 높은 편
	주택평수		30평형대 미만	40평 이상	30평형대	30평 미만	30평형대	30평 미만
	주택가격		1억 원대	3억 원 이상	2억 원대	1억 원 미만	1~2억 원대	1억 원대
관광 특성	국내 관광회수		5~6번	4번 이하	5~6번	4번 이하	5~6번	4번 이하
	국내 관광경비		20~40만 원 미만	10~60만 원 미만	60만 원 초과	20~60만 원	40~60만 원	20~40만 원
	교통수단		기차, 고속/일반버스	자가용	자가용	자가용	자가용	자가용
	경비조달		평소에 모은 돈	부모에게 받은 돈	평소에 모은 돈	1.평소에 모은 돈 2.여행적금, 계	평소에 모은 돈	평소에 모은 돈
	투숙 장소		콘도미니엄	여관, 여인숙	민박, 호텔	콘도미니엄	콘도미니엄	콘도미니엄
	관광정보		친구, 친척, 이웃의 관광경험	1.친구, 친척, 이웃의 관광경험 2.자신의 여행경험이나 여행지식	인터넷	친구, 친척, 옷의 관광경험	1. 친구, 친척, 이웃의 관광경험 2.대중매체(텔레비전, 라디오, 신문 등)	인터넷
관광지 선택	관광지 선택 중요성	접근성, 시설성	시설성	자연성	접근성, 경제성, 문화성, 시설성	경제성, 접근성	자연성, 경제성, 접근성, 시설성	

개최함과 동시에 박물관, 미술관, 사찰 등에서 신세대들을 위해 경제성에 대한 소구 필요성을 제기할 필요가 있겠다. 즉 신세대들에게 일정한 할인을 해 주거나 입장권을 소지한 신세대에게는 일정한 기간 내에 재방문하면 적정 금액을 할인해 주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문화관광개발형은 특히 경제성을 선호하였는데 관광지의 물가수준이나 숙박시설 가격의 적합성 등 관광비용과 관련해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신세대들이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군집6인 농촌관광개발형은 평균자체가 대체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관광지 선택 시 자연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경제성, 접근성, 시설성도 다른 집단에 비해 높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자연성은 해안관광개발형, 도시관광개발형, 부정형, 문화관광개발형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관광개발형은 관광농원이나 농촌 휴양단지, 주말농원을 비교적 지가가 싼 농촌에 개발함으로써 숙박시설 가격을 비롯하여 관광도산품, 관광지의 물가수준 등 관광비용의 경제성에 대한 편익을 강조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도시의 신세대들이 직접 농촌관광을 체험하고 참여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농촌관광이 대안관광으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으면 한다. <표 7>은 관광지 개발유형별 세분시장 프로파일이다.

V. 연구결과 및 제언

본 논문은 관광지 개발과 관련해 연령별 세분화 중에서도 신세대를 중심으로 그들이 선호하는 관광지 개발유형은 무엇이며 그러한 관광지를 개발함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관광지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신세대들은 해안관광개발 > 도시관광개발 > 산악관광개발 > 문화관광개발 > 농촌관광개발 순으로 선호하고 있었다. 따라서 해안에서 즐길 수 있는 스포츠형 레저시설의 건립과 아울러 도시에서의 다양한 볼거리, 즐길 거리의 개발 및 저렴한 가격으로 쇼핑을 할 수 있는 시설의 제공 등을 중심으로한 관광지 개발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둘째, 관광지개발요인을 세분화한 결과 해안관광개발형, 도시관광개발형, 산악관광개발형, 부정형, 문화관광개발형, 농촌관광개발형 등 6집단으로 구분되어 집단별 차별화 전략을 펼 수 있었다.

먼저 해안관광개발형은 20대의 대학재학 중인 남학생으로 가족의 한 달 평균소득은 200~300만원대이었다. 주택가격은 1억 원대로 30평형 미만인 주택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자가율은 가장 낮은 집단이었다. 이 집단은 접근성, 시설성을 보고 관광지를 선택하므로 요트나 스쿠버 다이빙, 수상스키와 같이 젊은이들에게 적합한 스포츠형 레저시설 등을 통해 직접 체험하고 참여해 볼 수 있는 시설의 구비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또한 기차나 고속버스, 일반버스 등 대중교통과의 연계성을 통해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고 숙박시설로는 콘도미니엄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도시관광개발형은 20대의 대학재학 중인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족의 한 달 평균소득은 300만 원대였다. 주택가격은 3억 원 이상으로 40평 이상인 주택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자가율이 가장 높은 집단이다. 이 집단은 관광지 선택 시 시설성을 매우 중요시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세대들에게 야간의 유흥활동, 쇼핑이나 즐길 수 있는 시설이 중요함을 보여 주고 있는데 실제로 관

광쇼핑은 관광객들이 가장 선호하는 행동이기도 하다(Timothy and Butler, 1995). 따라서 신세대들에게 도시에서의 볼거리뿐 아니라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쇼핑을 하기 위한 다양한 쇼핑몰의 설치 필요하며 비교적 저렴한 여관이나 여인숙 같은 시설의 확충도 필요하다.

산악관광개발형은 30대의 대졸 이상인 기혼남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 달 평균소득은 500만원 이상으로 가장 소득이 높은 집단이다. 주택가격은 2억 원대로 30평형대 주택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자가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집단이었다. 이 집단은 관광지 선택 시 자연성을 매우 중요시 여기고 있었다. 따라서 산악관광지 개발 시에는 주변경치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최대한 이용하는 관광지를 만들고 상대적으로 호텔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명승지 근처에 비교적 저렴한 중저가 호텔(budget hotel)의 건립과 동시에 객실 안에 인터넷을 설치함으로써 다양한 관광정보를 얻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신세대는 관광행동에 있어서도 패키지 투어보다 모험형 위주의 Allocentric 행태를 보여주는 특징이 있는데 산악에서의 등산, 스키장 개발을 통해 직접 참가하고 체험을 유도하는 관광지 개발이 필요하다.

부정형은 30대의 고졸 미만인 기혼여성으로 한 달 평균소득은 200만원대, 주택가격은 1억 원 미만으로 30평 미만인 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자가율은 낮다고 볼 수 있다. 부정형은 접근성을 가장 중요시 여기고 있었으며 그 다음 경제성, 문화성, 시설성을 중요시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집단은 개발자체에 관심이 없기에 개발업자가 접근하기에 힘든 집단이라 할 수 있다.

문화관광개발형은 20대의 대졸 이상인 미혼여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 달 평균소득은 500만원 이상, 주택가격은 2억 원대로 30평형대인 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자가율이 높은 편이었다. 이 집단은 경제성, 접근성을 중요시 여기고 있었는데 관광지의 물가수준이나 숙박시설 가격의 적절성, 토산품 가격의 적절성을 위한 지속적 지도와 더불어 교통수단으로 자가용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도로의 확충 및 신설을 통해 접근의 편리를 도모하고 콘도미니엄과 같은 숙박시설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신세대는 기성세대와 달리 자기표현이 강하고 뚜렷한 주관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등 기존세대와 다른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현재 경주에서 개최되고 있는 경주세계문화엑스포 같은 문화행사는 신세대들에게 우리의 문화뿐만 아니라 세계의 문화와 역사를 배울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의가 있다 하겠다. 지역적 고유성과 정체성을 살린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함은 신세대들에게 문화와 역사의식을 고양함과 동시에 전통문화의 지속적 계승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농촌관광개발형은 20대의 대학재학인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 달 평균소득은 500만원 이상, 주택가격은 1억 원대로 30평 미만인 주택에 거주하고 있고 자가율은 높은 편이다. 이 집단은 자연성을 가장 중요시 여기고 있었으며 그 다음 경제성, 접근성, 시설성도 중요한 요인이었다. 자연친화적인 농촌 관광을 통해 도시의 신세대들이 직접 농촌을 체험하고 참여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농촌 관광개발이 지속가능한 관광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예상한다.

끝으로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론적 시사점으로 관광지 선택요소를 경제성, 문화성, 자연성, 접근성, 시설성, 휴식·향수성으로, 관광지개발 유형은 도시관광개발, 농촌관광개발, 문화관광개발, 해안관광개발, 산악관광개발로 나누었으며 높은 설명력을 나타내었다. 관광지 선택

요소와 개발유형 등 다소 미흡한 연구 분야에 대해 이론적 근거를 제공해 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겠다. 둘째, 실무적 시사점에서 관광개발유형별 관광지 선택요인을 알아봄으로써 관광개발업자에게 세분시장별 특성에 맞는 개발방안을 제시해 주고 나아가 다양한 관광개발을 통해 지역의 균형 발전에 일정부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본다.

본 연구를 토대로 향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관광지 선택요소와 관광개발 유형의 척도개발을 위한 다차원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설명력을 높일 수 있는 다른 변수들에 대한 후속 연구 및 다양한 연구방법이 요구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신세대를 대상으로 하여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므로 신세대 외에 다른 연령별로 확대하여 자료의 객관성을 높일 필요가 있겠다. 셋째, 조사대상자를 대구로 한정하였으나 그외의 지역까지 포함하여 자료의 객관성을 높일 필요가 있겠다. 넷째, 관광행태가 신세대끼리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는 어떤 관광행태를 보이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곽노엽. 1999. "관광지속성의 선호도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상무. 1991. 관광개발론. 대구: 계명대학교 출판부.
 김영문·채수원. 1996. "관광지 선택에 있어서 AHP의 활용에 관한 연구". 관광학연구 제20권 제1호. pp63-81.
 박석희. 1997. 신관광자원론. 서울 : 일신사.
 박성용·오테현. 1999. "강원도 관광지 선택과 만족요인에 관한 연구". 산학경영연구 제12권. pp83-102.

박성현·조신섭·김성수. 2002. 한글SPSS. 서울: SPSS 아카데미.
 백샘이·간호섭. 2003. "2002 한일 국민교류년 기념 한국과 일본의 신세대 의복문화에 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제53권 제3호.: pp67-75.
 서태양. 1998. "관광개발과 지역발전에 관한 연구". 관광연구 제10권. pp135-167.
 서용건·고광희. 2006. "관광객의 쇼핑특성에 관한 연구". 관광학연구 제30권 제6호. pp177-198.
 심상화·김월호. 1998.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관광지 선택행동의 실증연구". 산학경영연구 제11권. pp149-171.
 오상순·임화순·고계성. 2005. "관광매력성의 계절 간 비교연구: 제주를 중심으로". 관광·레저연구 제17권 제4호. pp83-98.
 오석윤·오영찬. 2000. "노인층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관광지 선택행동에 관한 연구". 관광연구, 제15권 제2호. pp219-239.
 윤양수. 2003. "지역관광개발사업의 발전방향 1: 우리나라의 관광지 개발실태와 개선방향". 국토 제263권. pp5-17.
 이호선·김상범. 2006. "관광자원 요인분석에 따른 관광지 평가모델에 관한 연구: 산악관광자원을 사례로". 관광·레저연구 제18권 제2호. pp41-60.
 조배행. 2001. "한국 신세대의 호주 관광이미지 평가에 관한 연구". 관광정책학연구 제7권 제2호. pp185-200.
 진병렬. 2001. "관광자 가치가 관광지선호속성과 선택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최복수·이상경. 2000. "호텔종사원의 직무 및 직무만족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호텔경영학연구 제12권 제1호. pp19-34.
 한국관광공사. 1997. "전국관광 장기 종합개발계획 보고서." 한국사회학회 편. 1990. 한국세대의 세대문제. 서울: 나남.
 허윤정. 2000. N세대를 움직이는 마케팅의 귀재들. 서울: 시공사.
 허향진·현용호·허성철. 2005. "주민참여의식에 따른 지역경제연건, 지각된 편익, 비용, 관광개발유형 간의 구조모델분석." 관광학연구 제29권 제3호. pp229-250.
 末武直義. 1984. 관광학 입문. 동경: 법률문화사.
 Ahn, B. Y., Lee, B. K. and Scott, C. S. 2002. "Operationalizing sustainable in regional tourism planning: an application of the limits of acceptable change framework." *Tourism Management* vol.23. pp1-15.
 Cho, B. 1996. "An Analysis of the Korean Youth Tourism Market in Australia." *Australian Journal of Hospitality Management* vol.3, no.2. pp15-25.
 Gold, S. M. 1980. *Recreation planning and design*. New York: Mc Graw Hill.
 Hair, J. F. Jr., Anderson, R. E., Tatham, R. L. and Black, W. C. 1998. *Multivariate data analysis: Upper Saddle River*. (5th ed). NJ.: Prentice Hall.

Hudman, L. E. and Hawkins, D. E. 1989. *Tourism in contemporary society an introductory text*. New Jersey: Prentice-Hall.

Lavery, P. 1994. *Tourism*. New York: John Wiley.

Mathieson, J. A. and Wall, G. 1989. *Tourism; economic, physical and social impacts*. New York: Longman.

Mellor, C. S. 2003. "Towards new tourism development strategies in Cook islands". *Pacific Economic Bulletin* vol.18, no.1. pp100-107.

Nunnally, J. C. and Bernstein. 1994. *Psychometric Theory*. (3th ed). New-York: McGraw-Hill.

Pearce, D. 1989. *Tourist Development*. Longman Group UK limited.

Pizam, A, Neuman, Y. and Reichal, A. 1976. "Dimension of Tourist Satisfaction with Destination Area." *Annals of Tourism Research* vol.6. pp314-322.

Rao, S. R. and Thomas. 1992. "Activity Preference and Trip-Planning Behavior of the U. S. Outbound Pleasure and Travel Market". *Journal of Travel Research*, vol.31. pp3-11.

Sheldon, P. J. and Abenoja, T. 2001. "Resident attitudes in a mature destination: the case of Waikiki". *Tourism Management* vol.22. pp435-443.

Tapscott, D. 1998. *Growing up Digital: Net Generation*. McGraw-Hill.

Timothy, D. J. and Butler, R. W. 1995. "Cross-border shopping: A North American Perspective." *Annals of tourism research* vol.22, no.1. pp16-34.

Tumer, L. W. and Reisinger, Y. 2001. "Shopping satisfaction for domestic tourists." *Journal of retailing and consumer services* vol.8, no.1. pp15-27.

-
- 논문 접수일: 2007.10.10
 - 심사 시작일: 2007.10.22
 - 심사 완료일: 2007.12. 3

ABSTRACT

**A Study on the Selection Factor by the Destination Development Type
: Focused on New Generation**

Kwak, Jae Yong Lecture Professor, Dept. of Tourism, Catholic Univ. of Daegu
(Primary Author)

Ha, Jeung Soon Instructor, Division of Real Estate and Chinese Commerce, Catholic
Univ. of Daegu

※ Keywords: Destination Development, Development Type, Selection Factor, New Gener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what types of destination development new generations prefer and what they think is important in it to provide basic data for actual implementation of such development.

The analytical methods used in this study were frequency, mean, factor analysis, ANOVA, cluster analysis, Chi-Squae analysis, post-hoc estimation(Duncan test), To verify the reliability of each measure, Cronbach's alpha coefficient was used. Major findings are the following:

Results of segmentation of destination development factors can be categorized into six: coast tourism development, city tourism development, mountain tourism development, non-formational development, cultural development and rural tourism development.

It was revealed that when choosing destination, coast tourism development put priority on accessibility and facilities, city tourism development on facilities, mountain tourism development on naturality, non-formational development on accessibility and cost-effectiveness, cultural development on cost-effectiveness and accessibility and rural tourism development on naturality, cost-effectiveness, accessibility and facilities.